So one
망원동 소원

Out - of - home - Paintings
집 나간 그림

Park Xun 박선

2023. 6. 28. ~ 7. 15.

out of home paintings 망원동 소원 2023

풍경을 나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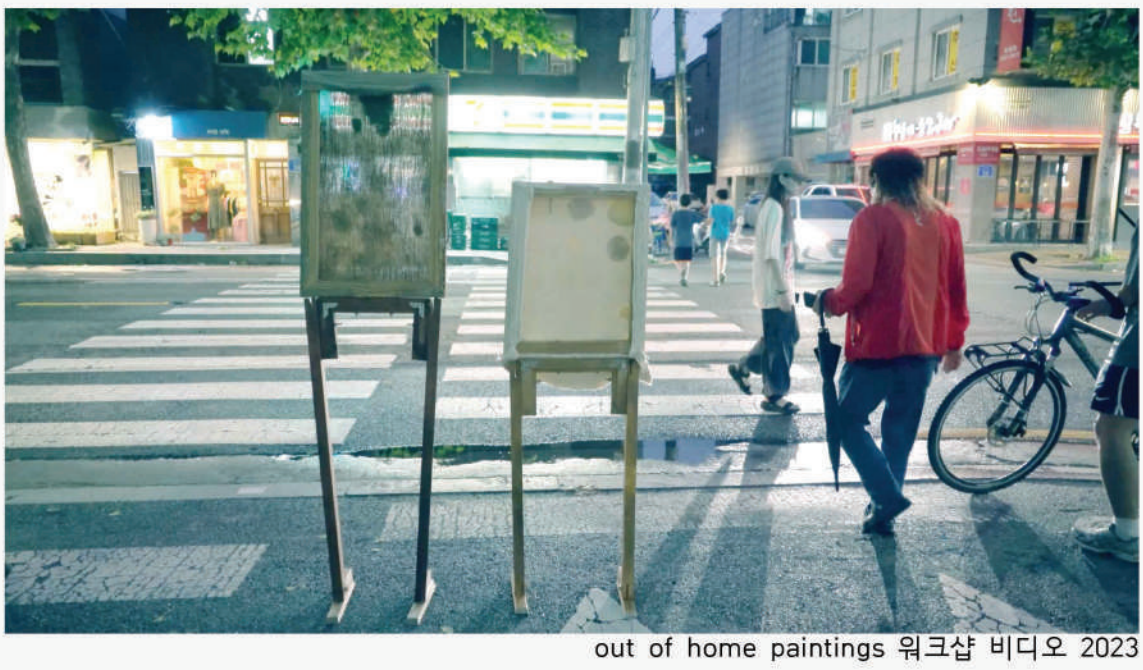
이아현(망원동 소원 동네 비평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손짓 여러 번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현재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예전과 달리 직접 마주하거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따금 느끼는 이 감정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자신을 외딴섬으로 체감하게 한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이 만연한 섬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박선은 이를 작품과 감상자의 관계로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집 나간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예술과 함께하는 인생"의 의미를 질문한다. 그에게 예술은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미학적o경제적 가치를 매기며 감상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작품과 감상자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가 열리는 곳의 위치 또한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전시한다는 것은 곧 전시 감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행위이다. 갤러리 앞을 지나치는 초등학생, 학부모, 망원동 주민, 망원동에 놀러 온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박선의 작품들을 보고 감상하며 인연을 가지게 된다.

전시장 바깥과 안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서 있는 회화〉다. 박선의 스탠팅 페인팅은 벽에 묶일 필요가 없는 회화다. 평소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서 회화가 설치된 방식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기존 회화의 틀에서 벗어난 시도이다. 회화에 있어서 공간 즉, 벽은 회화가 전시된 공간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따라서, 박선은 주어진 환경(벽)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존재를 통해 확장된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벽이 필요 없어진 회화는 이제 감상자 옆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다리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캔버스에 담는다.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의 집에 잠깐 머물 그림들은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된 그림들은 참여자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보여주며 가족과 가까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섬 면적을 넓혀나간다. 섬이 군도가 되고 군도가 하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집을 나온 그림은 여행자이자 이야기꾼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러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out of home paintings 워크샵 비디오 2023